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음 6월 24일) 제23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도, '탄소섬유' 비상대책 마련

전략물자 대상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에
단기 전략으로 수출규제 애로센터 이용 독려
장기 전략으로 연구개발 등 국산 탄소시장 확장

지난 4일 일본이 반도체 등 수출규제 이후 추가로 탄소섬유 등 한국의 전략물자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일련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신속하게 장·단기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도내 대표 탄소기업(10여개사)을 대상으로 피해 예상과 회사의 자구책 등을 파악하고, 19일 산업부와 함께 탄소공장(H사) 현장 조사, 22일 연구개발(R&D) 기관장과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장·단기

대응전략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단기 전략으로 전북중기청·중진공·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본 수출규제 애로센터' 설치·운영(15일부터 가동)에 따라 도내 탄소기업 1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함께 애로센터 등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장기 전략으로 효성의 추가 투자 유도과 기업간 상용화 연구개발(R&D) 유도,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탄소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 등 국산 탄소시장을 확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오는 8월에 발표 예정인 정부

의 '소재·부품산업 발전방안' 계획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소발전위원회와 탄소조합 등을 통해 대응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기회에 미래 신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이 안보지원화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 등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각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성기자



“화이팅”... 전주 스마트 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

2019 전주 스마트시티 & 디지털트윈 컨퍼런스가 25일 국립무형유산원 얼썩마루 대공연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장,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이상현 한글과컴퓨터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글로벌 전주’ 국제회의 유치로 위상 공고히

시·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내달 28~30일 국가위원회 회의 개최

동아시아 14개국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과 서화동예술마을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19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위원회는 국제기구 중 유네스코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로, 현재 전

세계 199개 유네스코국가위원회는 각국에서 유네스코 활동 홍보와 관련 사업, 유네스코 관련 네트워크, 파트너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회의에는 동북아 4개 국가와 ASEAN 10개국가 등 14개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및 관계자, 마토코 유네스코 본부 사무총장보(Assistant Director-General)와 유네스코 베이징·방콕·자카르타 사무소 관계자,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있어서 유네스코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유네스코 활동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등 유네스코 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위원회 간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이행 성과와 도전과제를 보고하고 전주의 전통문화를 홍보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2년 전 세계 4년

째,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로 국제협력사업 및 국제적 역량강화에 기여해왔다. 시는 또 국제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서화동예술마을을 탐방하고, 게스트하우스 숙박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한옥마을 투어 △김치담그기 체험 △비빔밥 체험 △한국전통문화전당 및 한지산업지원센터 견학 △팔복예술공장 방문 등 전주의 전통문화와 도시재생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송호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社 告

2019 제9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일시: 2019년 8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9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를 오는 8월 3일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공동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연맹 전주매일신문사 JJC 지방자치TV
- ▲후원: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전주시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063-288-9700)

전북도 북미잼버리 스타디움 현장서 '구슬땀'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준비하기 위해 2019 북미세계잼버리에 14명의 스타디움을 파견해 현장의 운영상황과 지원체계, 활동시스템을 상세히 조사하며 노하우 습득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스타디움은 지난 18일 웨스터버지니아주 서밋 백텔에 도착해 현지 책임자들을 통해 170개국 5만여명의 참가자 관리를 비롯해 인력파 시설 운용 상황, 문제점 및 개선 사례, 비상체계 등을 촘촘히 배워나가고 있다. 이들은 한국 홍보관을 본부로 두고 오전 10시에 조별로 분산하여 사

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토대로 운영본부, 행정본부, 기획조정본부 등 3개 본부의 현지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나눈 후 오후 5시에 홍보관에 다시 집결하여 일일 수집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귀국 후 북미잼버리의 100가지 확인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스타디움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김주영 잼버리코디네이터장은 "북미잼버리는 4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잼버리를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면서 "미국 잼버리의 운영 매뉴얼부터 실패 극복 경험까지 성실히 배워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현대옥이야기 ①현대옥의 수오지심 ②신메뉴이야기 ③지역사회 참여 ④콩나물국밥의 맛 ⑤스토리가 있는 현대옥콩나물국밥 ⑥소중한 조리 유산-토령국밥 ⑦오늘은 엄마를 쉬게 하자 ⑧새로운 시작

“기존 수익 모델만 지키는 기업에는 미래가 없다. 기업의 미래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

10여 년전 현대옥이 전주남부시장에서 밖으로 진출하였고, 전주의 주요 콩나물국밥 식당들간 선의의 경쟁은 촉발되었습니다. 이후 전주의 콩나물국밥 식당들의 개선과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콩나물국밥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콩나물국밥은 전주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도시에서도 '해장국'을 넘어 '생활 속 국밥'으로서 국민 음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옥은 세상에 없던 음식으로서 '얼큰돼지국밥'과 매운탕식으로 조리한 '전주끓이는식콩나물국밥'을 개발하였고, 지금 전주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옥은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지금 현대옥본점에서 시험 판매 중인 '현대옥순두부찌개'도 고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의 순두부찌개도 선의의 경쟁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리라 봅니다.

자매품 : 콩불고기

전주현대옥
JEONJU HYUNDAOK
Korean Restaurant Since 1978